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모두 발언문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11월 22일 17시

---

안녕하십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으로 일주일 간의 방한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8월 신임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후 첫 동북아 방문입니다. 방한에 도움을 준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합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방문을 지원한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내일 동북아 일정의 두 번째 국가인 일본으로 출발합니다. 이후 내년 3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방한동안 외교부, 통일부 및 법무부 정부관계자와 면담을 가졌고 국가인권위원회 및 통일연구원도 방문했습니다. 이번 주 책임 규명 방안을 모색하는 독립전문가 그룹도 방한하였는데, 앞서 말씀 드린 면담 중 독립전문가 그룹과 함께 한 경우도 있습니다. 독립전문가 그룹도 내년 3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면담 중 지난 3월 통과된 북한인권법 이행 상황도 논의했습니다.

정부 및 유관기관 면담과 더불어, 다수의 탈북자도 만났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한국전쟁 중 피란, 납치,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탈출하면서 비자발적 이산을 경험하고 여전히 가족과 헤어져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도 만났습니다.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주한 외교 사절과도 만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떠나 긴 시간 녹록치 않은 여정을 거치면서 감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을 탈북자 다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들과 이야기 하면서 탈북을 결심하게 한 인권 침해 상황을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이동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떠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이를 무릅쓰고 탈출을 감행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도 들었습니다. 대다수 여성은 인신매매 피해자이고, 중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중국에 두고 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강제 복송이 여전하고 당국 허가없이 탈북을 시도하다 실패한 후 구금될 위험도 있습니다. 국가 행정시스템 전반에 부패가 만연한데, 만연한 부패가 적절한 식량, 보건 및 교육 권리를 누릴 수 없게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탈북자는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겪었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이 납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의 가족도 만났습니다. 이들 가족은 당국이 관련 해명을 내놓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전쟁 후 이북에 있는 친인척과 만나지 못한 이산가족도 만났습니다. 이산가족은 이북에 있는 이들과 만나거나, 혹은 만나지 못하더라도 소식이라도 듣고자 합니다. 제 모국인 아르헨티나에서 강제실종 피해자와 오랜 기간 함께 한 경험을 생각해보면 가족과 강제로 헤어진 이들의 고통을 이해해야 하며, 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이 실종자 생사를 확인하는 데 협조하지 않고 계속하여 거부하는 바람에 실종된 이들 소재 파악이 어렵습니다. 한반도 내 긴장 고조로 강제실종 건을 논의하는 정치 대화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을 마지막으로 이산가족상봉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한 기간 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 개선에 기여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온 시민사회단체와도 만나 유익한 논의를 했습니다. 일부 단체는 조직적으로 자행된 중대한 인권 침해 사례를 기록하고 책임 규명 메커니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최근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이 책임 규명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책임 규명 방안을 살피는 독립전문가 그룹도 현재 방한 중이며, 저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이들 독립전문가 그룹이 시민사회단체 노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일부 단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보호 전략으로 해당국 내 인도주의 및 인권 계획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과 협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특별보고관으로 시민사회단체 모두를 지지하고 지원합니다. 반드시 책임규명을 논의해야 합니다. 동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협력도 추진해야 합니다.

제가 이어서 방문하게 될 일본에서도 책임규명과 협력 논의를 지속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7년 3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이번 방한 기간 동안 만난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향후 협력을 기대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질문 부탁드립니다.